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문화·미래산업도시 조성”

최경식 남원시장

독자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뱀은 재생, 변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특히 푸른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며 뱀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를 지니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도전과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내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으로 새해에도 우리 삶이 녹록지 않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만 어려운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과 위대



한 시민성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만기에 새해에도 저는 8만 남원시민들과 1천 5백여명의 공직자들과 민선 8기에 달라진 남원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더 도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남원시 전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영호남·지리산권 교육거점 도시를 여는

데 혼신을 쏟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국립유소년스포츠클럽스쿨 건립,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바이오 생태환경 구축, 산단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강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더 활력 넘치는 남원을 만들고 정주개선을 통해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

유희대 완주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장과 변화,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올 한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완주 군정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 도약’ 달성을 위한 3대 목표·3개 추진전략과 12개 주요과제를 역점 시행하고, 전북특별법 특례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시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 시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방면과 3천만 시대 개막을 위해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힘을 북돋아 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0만 완주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반영한 재해예방 인프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완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와 완주군 공직자는 올 한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의 자세로 완주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희망 새기는 2025년”

황인홍 무주군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은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무주군은 내용과 실질을 중시하며 실천의 의지로 함께 행하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를 모든 행정의 근본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구’와 ‘기후변화’에 주목할 것입니다. ‘무실역행’의 자세로 ‘공존의 터전, 끊임없는 도전으로 희망을 새기는 2025년’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주거와 에너지, 교육, 문화, 먹는 물과 교통 등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반딧불이’와 ‘태권도’ 등 무주만의 관광 콘텐츠로 상품화한 일상 속 자원은 야간관광 활성화와 체류시간의 증가, 재방문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경제의 한 축인 ‘농업’ 분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 시설 확대와 기술 지원 등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도울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인구이동과 유입의 결정요인은 주거와 생활 여건 등 다양하지만 ‘일자리’가 절대적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무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청년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무주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만큼,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기후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민의 삶을 헤아리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로운 임실의 밝은 미래 위해 혼신”

심민 임실군수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에서 더욱 춥고 힘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임실방문의 해인 2025년 새해에는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 임실’이라는 비전 아래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맞춤형 경제 시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맞춤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는 ‘임실방문의 해’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군정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전국, 아니 세계 속의 임실, 새로운 임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군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시고, 건강과 행복, 기쁨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특유의 환경 적응력으로 잘 알려진 동물입니다. 뱀의 지혜를 본받아 변화의 흐름을 타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부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좋은 기업 좋은일자리 생동하는 지역경제, 천혜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양성,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특유의 환경 적응력으로 잘 알려진 동물입니다. 뱀의 지혜를 본받아 변화의 흐름을 타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화로운 변화·개혁의 성과 만들어 낼 것”

정성주 김제시장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청색의 ‘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를 상징하며 ‘청사(靑蛇)’의 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을사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김제는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지나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을 돌파하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수많은 도전을 끊임없이 추구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을 위한 값진 결실을 창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조화로운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도전과 변화를 바탕으로 김제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군정에 박차”

전춘성 진안군수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2025년 을사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초록초록 빛나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진안군은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 덕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1년 만에 전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수도거성(水到渠成)’을 보여줬던 해였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도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2025년 군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민선 8기 동안 탄탄히 다져온 기반들이 본

격적인 성장과 변화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진안군의 뿌리는 군민 한분 한분이 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미래소독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진안군은 더 높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진안군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진안군의 밝은 내일을 향해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의 빛나는 미래 위해 힘차게”

최훈식 장수군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허물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은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고 군민의 역량을



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로 화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자세로 힘차게 밝았습니다.

또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장수군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군정 이끌 것”

최영일 순창군수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새로운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해 희망찬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올 한 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혁신과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주민 여러분의 봉사과 정성으



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실제로, 순창군은 복지, 농업, 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불망초심(不忘初心)’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순창군수로 취임하며 다짐했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의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순창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더욱 탄탄히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순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 항상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퀴 경제구조 고도화… 새만금 시대 준비 역량 결집”

권익현 부안군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진 피해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끈기와 연대는 부안의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디지털산업,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정착, 글로벌 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축으로 한 ‘세바퀴 경제구조’를 더욱 고도화하며, 생활인구 확



대과 새만금 시대를 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에서 전

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수소 생산을 시작하며, 푸드엔레포츠타운 개장, 크루즈 시범 기항, 격포권 대규모 관광개발 본격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글로벌 휴양관광지를 기반으로, 특색 있는 자원 활용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정부가 생활인구를 보충고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함에 따라, 부안군은 월 평균 40만명의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새만금을 희망과 혁신, 기회의 관문으로 삼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의 6배 규모에 달하는 국내 최초의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산업지형을 새롭게 재편할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민·군 겸용 테스베드 조성과 국제 K-광 학교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첨단산업과 한류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새만금이 부안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과 삶의 보람이 되는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고, 취약가구를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등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세심히 힘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25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